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 도구가 될 것”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가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83년 공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처럼 제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성엽 후보와 지지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 두 개 있는 이유처럼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 하는 정치, 반목과 대립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낡은 정치관행과 결별하고, 당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숙고하며 합의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약을 구현해내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큰 일라도 끈기를 갖고 하면 된다는 것을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논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창·정읍을 위해 황소처럼 일하고, 고향을 위해 불꽃처럼 제 자신을 태우겠습니다.

▲지역구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내장호 국립공원 구역 해제, 부창대교 건설, 한빛원전 안전성 강화 등 12년 이상 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본 산업인 농업과 어업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철도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고부~무장~태인을 연결하는 동학벨트를 구축하고,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창·정읍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융합해서 사계절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개혁과제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들고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에 담당하게 동참하여 선두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36년의 공직생활 동안 전북도청과 서울특별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과 도시행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행안위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경찰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사법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정보경찰의 재편 등 경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입법적인

뒷받침도 해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과 주택가격의 안정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닌 일 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문화 만들어 갈 것

내장호 국립공원 구역 해제 부창대교 건설 등 12년 이상 묵은 현안 해결에 온 힘 다할 것 동학혁명 계승사업 내실화

정읍·고창 관광자원 융합 사계절 관광시스템 구축 국가 개혁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음

도청·서울시청 행정과 근무 경험 살려 행안위 입법활동 하고파 경찰개혁 진행토록 입법 뒷받침 지방 인구감소 부합 교통대책 마련



대중교통정책을 위해서 버스와 철도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힘을 것입니다. 지방 특히 시골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국가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정치철학은 무엇이고 삶에서 지키고자하는 신념은?

행정과 정치는 백지장 하나 차이이다. 정치는 실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분배하는 것이다. 행정가나 정치가 모두 공직자이다. 공직자는 그 무엇보다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하고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약자를 배려해야한다. 나는 그렇게 공적 생활을 해왔고 이제 정치가로서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분배를 실현하는 데 그런 공적 마인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정읍시민, 고창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그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초에 약속드렸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읍과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윤준병 당선인 공약 사항

▲돈 되는 농·어·축 산업 육성

- 농·수·축산물 제때 제거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 지역 특산물 육성과 명품화로 돈 되는 농업 지원 강화
- 농업 공익가치 제도적 보장 강화
-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공동화 현상 저감
-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개선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과 관련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 확보
- 드론 등 항공관련 산업 육성
- R&D 연구단지를 통한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
- 기업유치를 통한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정읍·고창 경제를 꽃피우는 관광시스템 구축

- 경관, 문화, 역사 등 관광자원 관리 강화
-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 정읍·고창 기반 관광자원 개발
- 고창·정읍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운영

▲부창대교 건설 등 10년 묵은 지역 현안과제 해결

- 변산반도와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
- 한빛원자력발전소(영광) 안전성 강화 및 재원 배분 불균형 시정
-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
-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 추진 내실화
- 읍·면·동별 현안 과제 해결

▲어르신·여성·청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의 복지시스템 강화

-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어르신 복지 내실화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등 여성 복지 확

- 청년 활동 영역 확대 등 청년 시기 진작
- 한국어 교육 강화 등 다문화가정 정책 내실화
-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 확충

▲자긍심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체육·진작

- 정읍·고창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
- 독립운동정신 고취 및 현충시설 관리 강화
-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환경변화 대응 강화
- 전국대회 유치 등 지역체육 활성화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